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아파트 담보대출 시세 90%까지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21/28℃ 목포 20/26℃ 여수 21/25℃

단기 4344년 (음력 7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44호 1판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전라선 KTX 빨라진다

시속 150㎞→230㎞ 개선…서울~여수 2시간대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저속철'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철도(KTX)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여수박람회 관람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정현, 민주당 김성곤·주승용 의원은 21일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여수 간 KTX의 설계속도가 전북 익산-여수(전라선) 구간의 경우 시속 150㎞에 불과, 내년에 열릴 여수박람회 등에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시속 230㎞로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는데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 공사는 총연장 180.3㎞에 2조 90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설계속도가 낮아 호남 정치권 및 경제계에서는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병행 추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해왔다.

특히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잔여사업비가 1061억원 남아있어 이를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전라선 KTX고속화 사업으로 돌리면 여수박람회 개최 전인 내년 5월 이전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설계속도가 시속 230㎞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여수'간 소요시간은 기존 3시간21분에서 2시간5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향후 2014년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구간이 완공되면 2시간28분으로 30분이 더 단축된다.

속도 개선은 '수동식 신호체계'(APT)를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 의원은 "설계속도가 시속 150㎞면 실제로 시속 100㎞ 내외로 달려 새마을호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설계속도가 시속 230㎞로 빨라지면 실제로는 170㎞ 정도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공단으로부터 고속레일이 이미 상당 부분 깔아져 있어서 여수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결정시기가 2개월여 늦어지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추가로 요구한 4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여수박람회 전에 완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내용 : 전라선(익산~여수간) 복선전철(199.1㎞→180.3㎞)
◇ 사업기간 : 1988년~2011년(24년)
◇ 총사업비 : 2조 9010억원
◇ 열차운행시간 단축 현황

구분	현재	'11년 9월	'12년	'14년
운행시간 (용산~여수)	새마을호 5시간 15분	복선전철개통 3시간 21분	고속화 개통 2시간 57분	호남고속철개통 2시간 28분
단축시간		1시간 54분	2시간 18분	2시간 47분

벌써 내일이면 처서(處署)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를 이틀 앞둔 21일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지구 내 토종작물 테마공원에 주황색 단호박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기가수 만나고 특산품 싸게 사고

내달 2일부터 제1회 아줌마 축전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알뜰 장터

지역경제 소비 주체이자 가정생활의 원동력인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광주일보는 내달 2일부터 사흘간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제1회 아줌마 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부들이 가정의 주역으로서 받아온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 축제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구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전시, 할인 판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화합의 장도 마련된다.

더욱이 이번 행사가 추석을 1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어 각종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에 고민하는 고객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알뜰 장터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전시마당·열린마당·체험마당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째, 전시마당에서는 호남 농수축산물을 브랜드전, 농협 선정 브랜드전, 시군 우수 특산물관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중가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둘째, 열린마당에서는 남진·유리상자·조향조·해바라기·현숙 등 국내 최고 인기가수와 7080가수가 매일 출연해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일반 주부들이 참여하는 아줌마 가요제·아줌마골든벨대회·시낭송 대회 등이 열린다. 마지막 체험마당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먹거리 장터와 기업홍보관 그리고 혈압과 당뇨 등 시민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건강센터가 운영된다. 이밖에도 품바경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아줌마팔씨름 대회 등도 열릴 계획이다.

이번 축전 개막식은 2일 오후 2시 강운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국회의원과 시군구 단체장, 여성계대표, 지역 경제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

송정~목포 KTX는…

마지막 남은 저속철 구간…고속 신선 깔아야

'저속철' 논란을 빚어온 전라선 KTX의 고속철 결정을 계기로 마지막 남은 저속철인 KTX 광주~목포 구간의 고속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KTX 광주~목포 구간을 신설 대신 기존선 개량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번에 전라선 KTX의 고속철 결정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재돼 있던 광주~목포 구간의 신설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시 KTX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되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을 요구하는 전남도 등 지역민들의 요구와 달리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신설 대신 기존선을 개량할 경우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상 줄어드는 대신 속도는 평균 시속 300㎞에서 188㎞로 줄어들게 돼 저속철 논란을 빚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KTX 광주~목포 구간만 저속철로 남겨 둔다면 호남선 복선화에 36년이 걸린 것처럼 또다시 호남 홀대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도 고속 신선이 훨씬 경제적이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최종안에 고속 신선이 반영되도록 지역 여론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가거도 방파제 '100년 빈도 태풍' 견디게 보강

600억 들여 내달부터 복구…64t 테트라포드 80t으로

태풍 '무이파'로 초토화 된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가 100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폭 보강된다.

21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현 설계 단면대로 복구하는 '원상 복구' 대신 강력한 태풍과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단면을 대폭 보강한 '개량 복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에 맥없이 쓸려나가거나 파손된 방파제 보호를 위해 축조한 네발 콘크리트 구조물인 64t짜리 테트라포드(TTP) 무게를 8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방파제를 어느 정도 올릴지는 이번 주초 항만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복구비는 약 600억원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2013년까지 긴급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설계 파고 8.3m로 50년 빈도의 방파제가 이번 태풍 때 10.3m의 파도가 강타해 크게 부서졌다"면서 "이번에는 개량 복구를 통해 100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딜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거도 방파제는 이번 태풍으로 방파제 220m가 부서지고 TTP 2000개 유실, 안전난간 1073m 전파로 200억원의 피해가 났다. 특히 공사 도중 태풍으로 3번이나 유실되는 아픔을 겪으며 지난 2008년 30년 만에 완공됐지만, 지난해 '곤파스'에 이어 올해 '무이파'로 처참하게 부서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진도·광양·구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달 초 태풍 '무이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신안·광양·정읍 등 호남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중태풍 무이파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호남 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3개 시·군·구를 지난 19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별 피해액은 전남의 경우 신안 246억원, 광양 163억원, 구례 70억원, 진도 68억원 순이며, 전북은 정읍시 280억원, 임실군 105억원, 고창군 92억원으로 집계돼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2년 연속 무분규 임협 타결

조합원 투표 64% 찬성

기아자동차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분규 임협 타결한 광주공장은 올해 생산목표인 48만3000대를 넘어 50만대 돌파라는 사상 최대 생산 신기록 행진에 본격 도전한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19일 임협 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4.4%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 노사는 이날 찬반투표 가결 이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이삼웅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조인식을 열어 노사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기본급 9만원(5.17%)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주식 80주 지급 ▲교통사고 유자녀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조성 ▲재직 중 사망 조합원 유자녀에 대한 고교 장학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 접수기간 : 9월 9일(금) 까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